헥사민 시장“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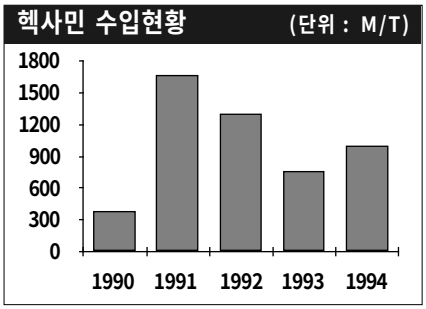
메탄올 등 원가상승과 중국산 수입 증가로

국내 헥사민 시장이 원료가 상승과 중국산 저가 수입품 유입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헥사민(Hexamethyleneteramine)은 1톤 제조시 메탄올 1.8톤과 암모니아 0.5톤이 필요해 원가비중이 큰데 최근 메탄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헥사민 중간원료인 포르말린 생산기업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아 원료의 가격폭등으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반기에 가서는 다수의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품은 품질에서는 앞서나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져 저가의 헥사민이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헥사민은 톤당 650~700달러선에서 수입이 이뤄지고 있어 국내 제품이8~9월 에 전월대비 10~15만원가량 오른 90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수입처로는 동진화성과 금양 등 헥사민 대수요처들이며 월간 약 120~150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진화성은 인도네시아에 헥사민 공장을 설립해 생산된 제품을 직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원가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헥사민의 수입물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메탄올가격 상승에 힘입어 헥사민 수입품 가격도 오르고는 있지만 그 폭이 비교적 작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3년에는 760톤 정도의 헥사민이 수입되었으나 최근 수입물량이 월간 100톤 이상을 상회함에 따라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로 플래스틱 · 고무 첨가제로 사용되고, 폭약과 약품 제조에도 사용되고 있는 헥사민은 국내에서는 삼양화학과 유진화학이 각각 월 3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폭적인 원가상승으로 인해 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뒤져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메탄올 가격의 폭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헥사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4/9/5>